

재활의원 안에서 걷는 것

많이 좋아져서 주말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가서는 걷지 않겠다고 말하는 환자도 있다. 이것은 뇌졸중 후 처음 몇개월 동안의 프로그램이 학교에 다니는 것과 같은 기대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재활센터 내에서는 걷는데 대한 기대가 강하고 그만큼 노력도 했기 때문이다.

물론 재활센터 훈련실에 비해서, 집안에는 장애물도 많고 걷기에 불편하기는 하다.



환자의 경우, 걷기 전에
필요한 모든 동작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있어
걷는 행위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잊지말아야 할 것은 환자가
아직도 시기적으로 혼란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보호
받던 환경

자기 집에서도 불안해
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에는 걸을 수
있을 거예요!